

세계개혁주의 협의회신앙 선언문

서언

사무엘 로간 박사 (세계개혁주의 협의회 국제이사)

이러한 신앙선언문이 최종적으로 완성될 때 자연적인(그리고 전적으로 그리스도인적인) 반응은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주님이 이러한 완성에 이르게 하심에 대해 무안히 기뻐합니다. 과연 이렇게 완성하신 분은 주님이셨습니다.

확실히 주님께서 그 과정에서 그의 많은 신실한 일꾼들을 사용해 주셨습니다. 그 대부분의 일꾼들이 아래에 열거되었습니다. 그러나 열거되지 않은 분은 “서론”을 작성한 분입니다.

앤드류 맥고원은 이러한 선언문이 준비되던 2000 년의 그의 첫 제안에서 부터 이러한 완성에 이르기 까지 이를 위해 수없이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는 그 모든 과정에 필요한 일이 이루어지도록 주도해왔습니다. 그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선언문이 드디어 완성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앤드류의 리더십이 효과적이었던 것은 그가 주도했다는 것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토의 과정에서 그의 탁월한 신학전문가(개혁신학적이면서도 복음적인)의 능력을 발휘하면서 인내와 지혜로서 모든 과정을 관리해 왔습니다. 앤드류는 세계 개혁주의 협의회 신학위원회의 사업의 성격을 특징하는 많은 토론들을 항상 주도하지는 않았습니니다. 그러나 그는 아주 중요한 문제들이 충분히 고려되고 있는가를 항상 확인하였고, 때때로 뜨거운 논쟁들을 주의깊고도, 성경적이면서, 그리고 철저히 개혁신학적인 결론에 이르게 될 때에 이 선언문이 공표하는 그러한 은혜를 그는 나타내 보였습니다.

세계 개혁주의 협의회 이사회와 모든 회원들을 대표해서 저는 앤드류 맥고원에게 “감사합니다. 아주 잘하신 일에 대해 감사합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2011 년 4 월 23 일

세계 개혁주의 협의회 국제이사 사무엘 로간 박사

서론

2000 년도 플로리다 올랜도의 세계개혁주의 협의회 창립총회에서 저는 새롭게 구성된 세계개혁주의 협의회가 21 세기를 위한 새로운 신앙고백서를 작성하여 교회를 섬길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이것은 유익한 작업이라고 제가 믿었던 세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로, 세계개혁주의 협의회원들은 많은 민족과 많은 교단들로 구성되므로 그들이 모든 종류의 신앙고백서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는 스코틀랜드 고백서(Scots Confession), 벨직 고백서(Belgic Confession), 하이델버그 요리문답(Heidelberg Catechism), 39 개조(Thirty Nine Articles), 돌트신조(Canons of the Synod of Dort),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Westminster Confession of Faith), 사보이 선언 등등(Savoy Declaration and others)이 포함됩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 모두가 “개혁신학”이라는데 전반적인 합의가 있었습니다. 우리들 모두가 개혁신학이라면, 공통적인 신학고백서가 나와야 한다는 것은 확실하지 않습니까?

둘째로, 오늘 날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언급할 수 있는 신앙고백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든 신앙고백서들은 16 세기와 17 세기에 작성된 것이며, 이들은 모두 중세 로마 카톨릭에 대항해서 개혁신학을 선언하도록 주로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것으로는 알미니안 주의에 대항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들 신앙고백서들 중 어느 한가지도 19 세기와 20 세기 교회가 당면한 자유주의, 다원주의, 포스트 모던주의 문제들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셋째로, 우리들의 모든 고백서는 서구 유럽에서 작성된 것입니다만, 세계교회의 리더쉽이 현재 지구 남반부로 이동해버렸습니다. 저는 아프리카, 아시아, 호주, 남미 출신의 신학자들이 이러한 과제를 가지고 유럽과 북미 신학자들과 함께 작업을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보는 것은 흥미롭다고 생각했습니다. 유럽과 미국 신학자들이 근세기세계교회에서 주도적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세계의 남반부 출신 신학자들과 더불어 일해야 옳을 것 같습니다.

창립총회는 이 과제를 진행하도록 허락하였습니다. 불행하게도 이 작업을 완성하기 위해 모든 세계로 부터 학자들을 모실 자원이 없었습니다. 드디어 2006 년 남아공에서 열렸던 총회에서 세계개혁주의 협의회는 신학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이때 구성된 학자들의 팀이

새로운 신앙선언문을 작성하도록 지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업무를 수행한 신학위원회는 다음과 같습니다(알파벳 순서): Dr Pierre Berthoud (불란서); Dr Gerald Bray (영국); Dr Flip Buys (남아공); Dr Leonardo de Chirico (이태리); Dr Wilson Chow (홍콩); Dr Victor Cole (케냐); Dr Allan Harman (호주); Dr Peter Jones (미국); Dr In Whan Kim (대한민국); Dr Julius Kim (미국); Dr Samuel Logan (미국); Dr Augustus Nicodemus Lopes (브라질); Dr Andrew McGowan (스콧틀란드); Dr David McKay (북아일랜드); Dr Steven Tong (인도네시아).

이들 중 다음 두 분은 특별한 언급을 받을 만 합니다. Allan Harman 은 작업내내 신학위원회 서기로 수고하면서 아주 큰 일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리고 Gerald Bray 는 편집자로 수고하면서 공통의 문체를 만들어 내었습니다.

이 즈음에 우리들은 Dr. Robert den Dulk 에게 세계 개혁주의 협의회의 특별한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관대한 지원을 통하여 이러한 과제가 끝나도록 한 것은 Bob 이었습니다. 그는 또한 작업 초기에 우리들에게 강력한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가 우리들과 함께 이 완성된 작업을 볼수 없게 된 것은 너무 큰 실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작업의 방법은 첫째 다루어야 할 주제들을 정하는 것, 둘째 이 주제들을 신학위원회 위원 2명 혹은 3명에게 나누어 주는 것, 셋째 소 그룹이 작성한 부분들을 토의하고 그에 따라 편집하는 것, 넷째 다음 위원회에서 다시 그것을 검토하는 것이었습니다. 대부분은 최종적인 문건이 작성되기 전 적어도 3 번씩 검토하였습니다.

신앙선언문이 완성되었을 때 2010 년 4 월 스콧틀란드 세계 개혁주의 협의회 총회에 상정되었습니다. 그때 모든 세계 개혁주의 협의회 회원들에게 수정이나 보충할 것이 있으면 2010 년 10 월까지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꽤 많은 수의 제안들이 쇠도하였고, 이들을 모아 2011 년 1 월에 신학위원회에 회람하였습니다. 2011 년 3 월 매릴랜드주 베데스다 제 4 장로교회에서 신학위원회가 모였습니다. 이 회의에서 수집된 모든 제안들을 조직적으로 검토하였으며 그에 따라 신앙선언문은 수정되었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모든 제안들을 다 수용하지 않았으나 모든 제안들을 일일이 주의 깊게 고려하였습니다. 이렇게 수정된 선언문이 그때 그 다음 날 세계 개혁주의 협의회 이사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이사회는 약간의 수정을 가한 다음 그 상정안을 채택하였습니다. 이 선언문은 2011 년 3 월 31 일 채택된 바로 그 선언문입니다. 세계개혁주의 협의회 총회의 요청으로

작성되었고, 그 이사회에서 채택되었으므로 이 최종 신앙선언문은 다음 세계개혁주의 협의회 총회에 상정될 것입니다.

이 신앙선언문을 교회에 제안하면서 다음 두가지의 중요한 요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 신앙선언문은 세계 개혁주의 협의회 회원 교단들이 이미 채택한 신앙고백서를 대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선언문은 개인들과 교회들이 개혁신학의 본질과 21세기 교회에 직면한 신학적 도덕적 문제들에 그 신학을 적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보충적 선언문입니다. 둘째로, 이 선언문에 대한 확인은 세계 개혁주의 협의회 회원자격의 요구 사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계개혁주의 협의회 차기 총회가 현재 사용중인 신앙고백서들의 항목에 첨가하여 회원 가입 희망자들이 확인해야 할 것 중의 하나로 할지에 대해 결정할 것이며, 이것은 오직 총회의 업무입니다.

신학위원회를 섬겼던 우리 모두는 이러한 경험을 통하여 많은 것을 얻었으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여러 교리에 대한 토론들은 우리들의 사고를 활발하게 자극하였고 날카롭게 해 주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서로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였을 때에 우리들이 나누는 친교는 아주 감사한 일이었고 또 우정이 형성되어 일평생 지속 되어 질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공통의 목적을 향한 헌신의 감각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말씀 드리자면, 저는 계몽주의가 유럽과 미국의 교회의 신학을 얼마나 좌지우지해 왔는가를 과거 어떤 때보다 더욱 절실히 깨달았으며, 세계 남반부로 온 저의 동역자들을 통하여 도전도 많이 받았고, 많이 겸손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들에게 많은 빛을 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들이 해낸 이 작업이 교회에 가치가 있고 개혁신학속에서 교리의 제반 문제의 연구를 증진시키고, 성도들을 교육하는데 있어서 유용하게 사용될 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사용해 주시고, 또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사용하도록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 개혁주의 협의회 신학위원회 위원장

A.T.B. McGowan 목사 교수

세계 개혁주의 협의회 신앙 선언문

신관

창조자의 정체

우리는 창조자시며 현존하는 모든 것의 보존자시며 통치자이신 한 분 하나님을 믿는다. 그분의 영원한 작정에 의해 그분은 우주를 확립하였고, 자신의 주권적인 의지에 따라 그 우주를 통치하신다. 어떤 존재도 그 분보다 더 큰이는 존재하지 않으며, 그의 창조에 대한 그의 주권에 영향을 주거나 변경하거나 축소할 능력을 가지지 않는다.

창조주와 그의 피조물

하나님은 그의 모든 피조물, 특별히 자신의 형상을 따라 만든 남자와 여자로 이루어진 인류에게 그의 임재와 그의 능력을 소통하신다. 남자와 여자들의 제반 소명이 서로 바뀌지 않으면서 서로 보완하도록 하기 위해 남자들과 여자들 사이에 존재의 근본적인 동등성이 있으나 차이점도 있게 하여였다. 비록 하나님 안에는 성 구별이 없다하더라도 그는 남성 술어로 자신을 본질적으로 계시하였으며, 그의 아들은 남성으로 성육신하였다.

모든 인류에 대한 창조주의 자기계시

하나님은 인격적인 존재이며, 인격적인 술어로 자신을 계시하신다. 고대에 그는 다른 많은 방법으로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그의 말씀들은 그의 능력의 표적이었던 행위를 동반하였고, 그 행위들에 의해 그의 약속들은 성취되었다. 인간에게 말씀하심에 있어서 그가 인간들에게 무엇을 명령하시든 인간들이 그 명령에 순종 할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신과 함께 자신의 목적들도 계시하셨다.

어느 누구도 자신을 믿지 않는 데 따른 변명을 못하도록 하기 위해 자연 질서는 신적 창조자의 존재와 능력과 위엄을 증언한다. 자연계시란 하나님이 예외없이 모든 인간에게 자연속에, 역사속에, 양심속에 자신을 계시하는 방법들을 묘사하는데 사용된 술어이다. 자연계시는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들의 책임까지도 알게하는데 충분하지만, 우리들을 구원에 이르게하는데는 충분하지 않다. 타락한 피조물로서 우리들은 영적으로 눈어두워졌고,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특별 계시가 요구되어진다. 하나님이 우리들로 하여금 자신의 자기계시의 진리를 보고 알수 있도록 할 때 하나님에 대한 참 지식은 생긴다.

인간은 인격적인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은 인격적이다. 그들은 생각하며, 인간의 언어로 표현되는 방법으로 서로 소통한다. 이러한 연관때문에 인간은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실재에 대한 지식으로 나아 갈 수 있으며, 전자를 개발하고 변화시키기 위해 후자로 부터 파생되는 후자의 개념들을 사용할 수 있다. 눈에 보이는 창조의 일부분으로서 인간은 다른 물질적인 피조물과 상호의존적으로 산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피조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신분을 의식하고 있으며, 나머지 창조질서 속에 있는 의미를 찾고 또 그에 대해 통치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인간의 지식은 인격적이며, 사실적인 세부사항들을 습득하고 또 목록으로 분류할 수 있는 능력에서 부터 더 깊은 의미와 목적의 이해에 이르도록 하기위해 그것들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으로 까지 확장한다. 이로인해 인간은 그들에게 부여된 창조에 대한 책임을 가지며, 그들이 그 책임에 연관된 방식에 따라 하나님께 응답해야만 한다. 인간지식은 객관적으로는 피조물적인 유한성에 의해, 주관적으로는 철저한 범죄의 상태로 인도하였던 하나님을 거부한 것에 의해 제한되었다. 지식과 깨달음을 습득할 수 있는 객관적인 능력은 범죄로 타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 남아있으나 그 타락의 효과가 너무 지대하므로 어떠한 인간이나 사회도 하나님에 의해 근본적으로 의도된 방식으로 창조명령을 성취할 수 없다.

언약백성에 대한 창조자의 자기 계시

하나님은 특별한 관계를 형성하신 자신의 언약의 백성들에게 더욱 충분하고도 완전하게 자신을 알리신다. 하나님은 성령에 의하여 살아있는 (그리스도안에서), 기록된 (성경안에), 설파되는 (설교로) 자신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자신을 계시하신다.

구약과 신약에 있는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는 인간들이 그를 알고 사랑하고 섬기기에 정확하고 충분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신지식은 우리들에게 알려 질 수 없는 하나님에 관한 더 많은 것이 있고 또 경험에 의해 알려질 수 있는 것들도 있으나 인간의 언어로 충분히 표현될 수 없기 때문에 완벽할 수 없다. 원래 하나님은 종종 자신의 피조물의 어떤 것과도 같지 않으므로 우리들은 그는 그 무엇이 아니라고—그는 보이지 않고, 육신적이지 않고,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충분히 인식될 수 없는 분—말함으로서 그에 대해 다만 말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그는 인간들이 인지하고 표현할 수 있는 특성들을 가지고 있으며, 그는 모든 것을 알며 모든 것에 지혜롭고, 모든 것에 능력있는 절대적인 정도에 이르기까지의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 이들 특성들은 밝혀질 수 있으나 인간의 이성과 논리의 범위속에서 충분히 정의될 수 없다. 그것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확립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하여 진정으로 알려지고 이해될 수 있다.

하나님은 큰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땅을 받게 될 것이며, 전 세계에 축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약속을 주신 아브라함에게 특별한 방법으로 말씀하였다. 이러한 약속들은 그의 아들 이삭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은 그의 손자 야곱에게로 갱신되었다. 야곱의 자손들을 통해 이스라엘이라는 그 민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세계에 전달하며 신적인 구세주의 오심을 준비해야 하는 역사적 운명을 가진 특별한 백성이 되었다. 이 말씀은 선택된 종들을 통하여 주어졌고, 결국에는 소위 히브리어 성경 혹은 구약이라는 기록된 문서로 보존되었다. 구약 성경에 약속되었고, 그림자로 알려진 것은

결국 그리스도안에서 성취되었다. 성전 예배와 동물 희생제사를 포함한 구약에 미리 지정된 많은 것들은 더 이상 필요없게 된 반면, 그것들의 영적인 원칙들은 폐지되지 않았다. 우리들이 아브라함과 나누고 있는 믿음에 근거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연합된 성도들을 위해 이러한 것들은 여전히 유효하다. 기독 신자들은 한 가정 곧 세상 땅 끝까지 확장되어야 할 하나님의 나라를 구성하며, 기독교의 복음 전파는 그것을 듣고 믿는 모든 자들에게 축복을 가져다 준다. 인종적으로 유대인이지만,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자들은 그들의 조상에게 약속된 축복을 받지 않았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지막 때에 충분히 들어나게 되어질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안에서 특별한 위치를 유지한다. 그러므로 교회는 메시아이고 구원자이시며 주님이신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유대인들과 나누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그들이 비 유대인들과 같은 근거로 기독교 교회로 일원화된다.

성부 성자 성령은 동일한 위격의 삼위일체를 형성함

그리스도안에서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자신을 계시하시면서 기독교를 세계 단일신 종교들 가운데 특징있는 종교가 되게 하였다. 하나님은 단일한 개체가 아니라 영원토록 인격적인 교제중에 거하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일체이시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 따라 피조된 인간들이 그들 스스로의 인격적인 정체성과 하나님 및 다른 인간들과 관계에 대한 인식을 갖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인간적이든 신적이든 인격적 정체성속에 내재한 개별적 구별성은 한 하나님안에 영원토록 존속한 신적인 세 위격(person)들의 구별에 근거를 두고 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성부나 그 이외의 누구로 부터 파생되었거나 전이되었거나 상속된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고유한 권리 속에서 모두 동등하고도 완전히 하나님이다. 그들은 공통적인 신적 본성을 공유한다. 그리고 한 분 하나님만이 계시기 때문에 삼위 모두를 모르면서 삼위중 일위를 안다고 주장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신적 위격들은 각 위격들에 대해 구별되지만, 모두 사랑이라는 공통분모에 의해 특징지어지는 방식에 따라 각

각 서로에게 연결되어 있다. 성부가 성자에게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위를 주신것은 성부가 성자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성부가 원하시는데로 우리들이 성자와 함께 하늘에 살도록 하기 위해 성자가 자발적으로 우리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신 것은 성자가 성부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성령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 자신에 대해 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부와 성자에 대해 증언을 하고 그들의 공통의 생명을 우리들에게 가져다 주신 것은 성령이 성부와 성자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끝으로 우리들이 그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고, 그 사랑속에서 그에게 연결이 되고 또 우리들의 인격적인 관계속에서 그 사랑을 나타낼수 있는 것은 우리들 역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인격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이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성부로 말씀하신다.

구약에서 비록 성부라는 어휘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 말씀하는데 통상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신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와 동일시 하는 한 위격으로 말씀하신다. 그러나 구약의 하나님은 예수님에 의해 우리들에게 계시된 성부라는 위격과 완전히 일치하는 방식으로 주권적이며 눈에 보이지 않으신다. 성부는 예수님(성자로서)이 그 뜻을 순종하고 성취하기 위해 오신 바로 그분이이며, 그분은 영원토록 눈에 보이지 않으시면서도 모든 시대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한 위격이시다. 성자와 성령은 구약에서 매우 광범위하게 묘사되어 있지 않으나 그들은 영원토록 하나님안에 임재하시며 하나님의 모든 행위 특별히 창조라는 위대한 일에 충만하게 참여하시며, 약속된 메시아의 위격과 사역 및 하나님의 백성들과 더 광범위한 세상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의 사역에 대한 많은 언급들이 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안에서 충분하면서도 최종적으로 자신을 계시하셨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및 그의 모든 택한 백성들과 맺은 옛 언약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안에서 충분하면서도 최종적으로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선지자시며 말씀이요, 제사장시며 제사이고, 왕이시며 왕국이시다. 그는 인간의 육체속에 있는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더 이상의

계시가 필요하지 않다. 그리스도안에서 하나님은 첫 위격을 그의 아버지라고 밝히고 그가 떠난 다음 셋째 위격 즉, 성경이 성령이라 부르는 다른 보혜사를 보낼 것을 약속한 아들로 자신을 계시하셨다. 그러므로 한 하나님 안에 삼 위격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의 본질적인 내용이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우리들에게 자신을 계시하신다.

하나님은 몸소 낮추어 인간의 언어를 사용하시었고, 또 성자는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인간의 술어로 하나님에 대해 말하는 것은 가능하다. 첫 제자들은 예수님의 신체적 모습을 묘사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신약은 예배를 보조하거나 예수님의 지상에서의 임재를 상기시키는 것으로서 예수님의 그림이나 조형을 만들도록 어떤 특별한 격려도 하지 않는다. 예수님에 대한 어떠한 그림이나 극적인 초상화도 그것 자체로서 권위를 가지지 않으며, 그와 같은 것들은 존경이나 예배의 대상이 결코 될수 없으나 다만 다른 방식으로만 유용 할 뿐이다.

악과 죄

악의 기원

하나님은 모든 우주를 아주 좋게 만드셨다. 하나님은 악의 저작자가 아니시며 그의 거룩성도 악의 존재와 타협되어지지 않는다. 악은 사탄과 몇몇 천사들의 반항으로 기원되었다. 교만이 그들의 타락의 뿌리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타락한 천사들을 마귀라 부르며 사탄에 의해 이끌려 진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반대하고 그의 목적을 좌절시키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악의 능력들에 대해 언제나 주권적이며, 그들의 모든 행함들을 사용하여 그의 구원계획을 이루어 가신다. 어떤 방식으로든 마귀들을 예배하거나 섬겨서는 안된다. 그들의 행함은 거짓 종교뒤에 숨어 있으며, 사탄은 인간의 마음을 눈 멀게 하여 진리를 못 보게 한다.

악과 인간

악은 에덴 동산에 있는 첫 인간들의 죄를 통하여 인간의 생활에 침입해 들어왔다. 아담은 전 인류의 조상이며, 그래서 모든 인간은 누구나 무질서해진 세상과 육체적 죽음을 포함하여 그의 범죄의 결과의 고통을 당하지 않을 수 없다.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을 하나님의 위치에 두었으며 또한 사탄에게 충성하였다. 하나님과 같아진다는 유혹에 빠짐으로 광범위한 결과를 가져왔다. 하나님에게 돌려져야 할 영광을 그에게서 훔친 것은 하나님에 의해 확립된 구별들의 제거로 이어졌고, 신적인 영역으로의 침범과, 하나님에 의해 규정된 남자와 여자의 구별의 파기와 인간들과 동물들 사이의 혼란에 휩쓸린다. 잘못된 이유들을 위해 선한 것을 사용하므로 혼란과 긴장과 고통이 인간 사회 가운데에 나타났다.

인간의 삶속의 죄의 결과

인간들은 어린이 학살, 권력남용, 세계전쟁, 여러 형태의 테러, 정신질환 살인, 인신매매, 약물남용, 모든 종류의 폭력등과 같은 경악할 악들을 일으켜 오고 있는 초자연적인 자들과 함께 세력을 합친다. 인간의 의의(意義)에 대한 과소평가와 손상을 하지 않으면서 이와같은 악의 포악한 형태들은마귀의 세력에 의해 더욱 파급되고 또 자행되어진 결과 인간들은 그들의 사상과 행동에 있어서 분열되고 파괴되어 동물의 수준 이하로 떨어질 수 있다. 악은 창조와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의 파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와 진리의 억압을 지향 한다. 마귀들은 증식하거나 인간에 의해 파괴될 수 없다 하더라도, 이 모든 것의 종국을 가져다 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하고 기도하면서 우리들은 마귀들이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악, 불의, 억압과 폭력을저항하도록 여전히 부름을 받았다.

죄와 그 결과의 보편성

아담안에서 모두 죽는다. 그리고 모두가 범죄하였기 때문에 죽음은 모두에게 파급되었다. 전 인류는 타락과 그 결과 즉 죄, 소외, 폭력, 전쟁, 질병, 고통과 죽음에 모두 연관되어져 있다. 영적으로 말하자면, 모든 인간은 하나님에게 반항하고 그의 축복으로 부터 단절되었기 때문에 죽은 자들이다. 비록

타락한 인간들이 많은 진리를 발견하더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측면으로 그들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틀이 결여되어 있다. 죄인으로서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진리의 결과를 거부하고 대신 그들의 사악함으로 그것을 억압한다. 신체적 죽음은 그들이 만들어진 흙으로 돌아가기 까지 그들속에 역시 역사한다. 만약 하나님이 은총으로 간섭하지 않으신다면, 영적인 죽음은 영원한 죽음이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인물과 사역

그리스도의 영광

기독교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물이 존재한다. 그의 영광과 위대함은 그를 예배하고 높이는 것은 각 신자의 의무이자 열망일 정도이다.

하나님의 성육하신 아들은 하나의 신적인 인물이며 두 가지 본성을 지닌다.

삼위일체의 두번째 위격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적인 인물은 처녀 마리아의 자궁속에서 완전한 인간의 본성을 지녔으며,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으로 태어났다. 그는 두 가지 본성들 즉 신적 본성과 인간적 본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본성들은 그 자체로 전체적이면서도 구별 되지만, 동시에 그의 신적 인물안에 그리고 그 신적 인물에 의하여 통일되어 있다. 성부와 성령과 함께 공유하는 그의 신적인 본성은 고통을 당하거나 죽을 수 없기 때문에 성자는 인간의 범죄의 값을 지불하고 우리들을 하나님과 화해 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인간의 본성을 취하였다. 십자가위에서 고통당하시고 죽으신 것은 두 본성 중에 있는 성자이다.

성육하신 하나님의 아들은 참 인간이다.

성육신하신 나사렛 예수로서 하나님의 아들은 참 인간이 되셨다. 그는 신적인 본성을 유지하면서 인간의 마음과 인간의 의지를 소유하였으며, 정상적인 심리적 구조를 가졌다. 그는 다른 인간들과 꼭 같이 유혹을 받았으나 타락하여 범죄하지 않으셨다.

성육하신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들을 그의 아버지와 완전하게 화목하게 할 수 있다.

인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 보다 자연적으로나 객관적으로 우수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에게 완전하게 순종하여 전적으로 죄가 없었기 때문에 십자가위에서 우리들을 대신할 수 있었고, 우리들의 죄값을 치루실 수 있었다. 우리를 위해 죄가 되시므로 그는 자신의 아버지로 부터 자신을 분리할 수 있는 어떠한 범죄를 야기하지 않고도 하나님에게 진 우리들의 빚을 청산할 수 있었다.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은 창세전에 그 안에서 선택된 모든 자들의 구원을 확보하였다.

그리스도의 부활한 몸의 본질

무덤에서 이틀을 지난 다음 나사렛 예수는 변화되었으나 여전히 알아 볼 수 있는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죽은자들로 부터 다시 일어났다. 그의 부활한 몸은 자연적인 물리적 법칙들을 초월할 수 있게 되었으나 여전히 신체적 속성들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승천하였을 때, 그 몸은 현재 여전히 소유하고 있는 천성적인 상태로 더욱 변화되었으며 하나님에게로 올리워졌다. 인간도 예수님이 첫 부활의 아침에 부활했던 대로가 아니라 그가 승천하신 상태에서 지금 계신 그대로 부활될 것이다.

성령의 위격과 사역

삼위일체의 한 위격으로서 성령

성령은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창조와 구원 사역에 관여하였다. 특별히 성육하신 성자는 성령에 의해 잉태되었고, 성령으로 기름부음 받았고, 지상에서 공개적인 사역을 이행하기 위해 성령으로 권능을 받았다.

구원에서 성령의 사역

성령은 성자의 구원사역을 신자들 개인에게 적용하여 그들을 그들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또한 신자들 서로서로에게도 연합하게 하신다. 그는 신자들을 하나님의 가정으로 입양시키는 담당자이며,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에 의해 선택되었다는 내적 확신을 그들에게 갖게하신다. 그는 하나님의 계시된 뜻과

특성에 맞추어 신자들을 도우며, 가르치며, 인도하며 이끌어가신다. 그는 신자들 속에 그의 열매를 맺도록 하면서 그들을 성화시키고, 그들을 위해 성부에게 끊임없이 중보기도 드린다.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심

오순절 성령 강림은 신자들의 생활속에 하나님의 새로운 사역의 시작, 곧 기독교 교회의 창립으로 이끌었다. 그때에 주어진 특별한 계시적 은사들은 메시아 시대의 시작에 대한 독특한 표적들이었다.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결정적인 증명으로 오늘 날도 활동중인 것으로 자동적으로 주장되거나 요구되어서는 안된다. 교회의 공익을 위한 봉사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또한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 성령의 지속적이면서도 다양한 은사들은 겸손하게 간구되어야 한다.

성령과 영적 부흥

성령의 능력은 교회의 삶속에서 주기적으로 일어나는 영적 부흥시기 동안에 특별한 방법으로 계속해서 나타난다. 이러한 각성과 영적 갱신의 시기들은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의 범죄를 더욱 의식하게 만들며 새롭고도 더욱 깊은 방법으로 그들을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게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확장시킨다. 이와 같은 시기에 신자들은 성령이 그들의 삶속에서 역사하고 계심과 그들에게 주신 은사들을 더 많이 인식하게 되므로 성령의 임재를 다시 깨닫게 된다. 영적 부흥은 잘못될 수 있는 위험에 항상 처해 있는 교회를 개혁하므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하는데 특별히 효과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 부흥의 시기 중에 확실하게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는 항상 교회에 현존하며 신자들은 성령의 열매들과 은사들을 위해 언제든지 열심히 기도해야 한다.

성령과 영적 전쟁

성령께서는 사탄과 그의 마귀들과 활발하게 싸우며 그들로 부터 신자들을 보호하신다. 성령은 남자와 여자를 마귀의 억압과 사로잡힘으로 부터 구원하고 그들이 악마의 능력을 저항하는데 필요한 영적 무기들로 그들을

무장 시키신다. 성경은 신자들이 흑암의 세력들 및 그들의 사역들과 잠시라도 손잡는 것을 금지한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

일반은총

하나님은 사람들이 구원에 들어 가게 할 특별한 은총 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일반은총을 시행하신다. 이 일반은총에 의하여 죄가 억제되며, 범죄한 인간들이 하나님으로 부터 축복을 받으며 선한일들을 행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일반은총은 인간사회의 기초를 제공하고, 예술과 과학 분야에서 일을 가능하도록 한다. 최악에 이르게 한 인류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가능하게 하셨으므로 예술과 과학 분야에서도 이러한 일을 하게 하신 분은 성령이시며 그래서 문화의 발전과 인류의 문명이 하나님의 선한 선물들이다.

하나님의 소명과 선택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소명은 회개하고 믿는 것이다. 어느 누구도 성령의 사역 없이 이러한 소명에 응답할 수 없다. 비록 많은 사람들이 귀로 메시지를 받거나 직접적으로 성경이나 혹은 간접적으로 기독교적인 문헌을 읽더라도 그들이 모두 선택받은 것은 아니다. 타락한 상태대로 인류를 버려두시기 보다는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또 은혜롭게도 인류의 일부를 선택하여 영생에 이르게 하신다. 성령에 의해 조명되어진 심정과 마음을 가진 자들만이 죄의 용서함과 하나님에게 받아들여지는 약속된 은사들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

중생의 본질

죽은 상태에 있는 죄인들은 성령의 사역에 의하여 하나님으로 부터 생명을 받으며, 그 생명의 접붙임은 하나님과 그의 의로움을 향한 새로운 오리엔테이션을 초래하게 된다. 오직 성령만이 거룩함—이 거룩함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볼 수 없음—을 가져오는 변화를 야기할 수 있다. 이러한 중생의 사역은 성격의 변화를 가져오므로 기독교인들은 독특한

사람들이 된다. 왜냐하면 그들 모두가 성령을 소유하므로 그들은 모두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들이 공통으로 공유하고 있는 것은 새 생명에 접붙여진다는 것 즉, 그들은 이제 그리스도와 분리할 수 없는 영적 연합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다. 신약은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즉, 그들은 '하나님의 상속인과 그리스도와 공통 상속인'이되었다고 말함으로써 이 사실을 표현한다. 그들은 모든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 감추어져 있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으므로 그들은 그분 안에서 완전하다. 모든 기독교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하고 있으며,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는 것은 또한 신자들끼리 서로 서로 활발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들은 공통의 구원과 공통의 목표 및 열망을 공유한다.

중생의결과

하나님의 중생 사역은 반복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에 의해 의롭다 칭함을 받았으므로 기독교인들은 그들의 영적인 상태에 일어난 변화에 의해 신분상의 변화를 나타낸다. 회심은 새 생활의 뚜렷한시작을 표시하므로 신자들은 그들의 새로운 본성과 영적이면서도 영원한 문제들을 향한 열정과 일치해서 살아갈 것을 추구한다. 새 생활의 심장에는 회심의 표현으로 함께 결속되어 있는 회개와 믿음이 자리잡고 있다.

믿음

믿는 은총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므로 믿음은 구세주 그리스도에 대한 개인적인 믿음과 헌신에 의하여 구원의 축복을 받는 행위이다. 이 믿음은 하나님의 계시와 모든 약속된 축복들을 붙잡게 되고, 받게 되고, 누리게 되는 도구이다. 믿음은 성경의 메시지가 참이라는 것과 그리스도의 제반 공적들과 사역을 자기 것으로 삼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확신이다. 참 믿음은 그 믿음의 대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는 구세주로 맞이되어지고, 서약의 행위에 의해 영혼은 구원을 위해 그분만을 홀로 믿는다.

칭의

칭의는 성령에 의한 효과적인 소명과 그결과로 일어나는 죄인의 회개와 믿음의 반응--"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신"--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행위이다. 칭의에 있어서 하나님은 죄인들의 죄를 용서함 받은 것으로 간주하시고, 또 그리스도의 의가 그들에게 속한 것으로 여기시면서, 그가 보실 때 죄인들이 의롭다고 선언하신다. 칭의는 실제로는 죄인들이 죄 가운데 있는데도 하나님 편에서 그들이 의롭다고 여기는게 하는 것이 아니다. 칭의가 참이며 하나님의 거룩성과 일치하기 위해 칭의는 공적(功績)적인 근거를 가져야만 한다. 하나님이 그의 칭의의 선언에서 의롭기 때문에 참된 의는 존재해야만 한다. 죄인들은 다른 이에 의해 공급된 의, 즉 그들에게 속한 것으로 여겨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근거해서 의롭다고 칭해진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의(義)의 전가(轉嫁)는 기독교 신앙에 근본이다.

그리스도의 의는 우리들의 칭의의 근거

그리스도의 의는 하나님의 율법의 모든 계명에 대한 그의 완전한 순종의 삶과 그의 모든 백성들의 범죄로 야기된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의 형벌을 짊어지신 십자가에서의 그의 죽음 즉, 그의 승리의 부활로 인봉된 사역으로 이루어진다. 신자들은 자신들 대신에 그리고 자신들을 위해 하나님의 율법의 모든 요구를 충족시키신 그리스도와 꼭 같은 의로운 신분을 지금 공유한다. 죄인의 칭의의 근거는 오로지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로움 뿐이다.

바울과 야곱의 칭의에 대한 가르침의 조화

칭의에 대한 바울과 야곱의 가르침에 아무런 충돌이 없다. 바울은 칭의를 하나님 앞에서 용서함 받고 수용되는 것으로 기록한 반면, 야곱은 이러한 칭의가 진실된 것이라면 그 칭의는 순종의 삶속에서 그것을 보여야 함을 주장한다.

그리스도안에서 신자들의 양자됨

본질상 영원 전부터 피조되지 않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위치는 독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이 구원한 자들을 그의 형제와 자매로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 하지 않는다. 이러한 하나님의 입양된 자녀들은 그리스도가 그들을 위해 획득해 놓은 기업, 즉 완전한 정도의

구원의 축복들의 상속자들이며,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로 묘사된다.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신자들은 자신의 가정을 위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모든 축복들을 함께 나누어 가지며, 성령의 내적 증언에 따라 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하고 하나님에게 말씀 드린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동정과 그들의 모든 필요에 대한 하나님의 보살핌의 대상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또한 그리스도의 고통과 그 결과로 따라오는 그의 영광을 함께 나누는 특권을 가진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더 큰 특권--그들의 양자됨을 확인해 주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부성애적 채찍을 경험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들을 아들로 다루신다. 그의 아버지가 훈육하지 않는 아들이 어디에 있으리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 몸으로 통일되어 있다는 것은 두려워야 할 특권이며, 서로 사랑하고 섬겨야 할 책임이다.

양자됨의 충분한 축복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때 까지 두려워할 수 없을 것이다. 양자됨은 현재적인 것이지만, 기독교의 소망의 한 요소인 종말론적인 것이기도 하다. 그래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것은 우리 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양자됨은 그리스도가 그의 백성들에게 부활의 새로운 몸을 주실 때 즉, 신자들이 새로워진 창조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를 누릴 때 까지, 완전하지 않을 것이다.

성령의 성화의 사역

성령은 의롭다 칭함을 받았고 또 양자가 되어 거룩하게 되었고 그리스도의 모양으로 변화되어진 자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신다. 신자들속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바를 의지(意志)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 모두를 포함한다. 주님의 모든 계명들에 대한 능동적인 순종은 필수적인 것이다. 성화는 인간의 삶속에 있는 죄스러운 모든 것들을 죽이고 새롭고도 경건한 습관들과 생각하고 살아가는 방식들을 개발할 것을 요구한다.

기독교인의 완전함에 달성

이러한 현재 생활기간 동안에는 어떤 신자도 죄로 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으며, 성화는 다양한 진도로 진전한다. 성화의 사역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총에 의해 완전해 진다. 영혼은 죽을 때 완전히 성화되어 완전하게 된 의로운 자들의 영들과 합류하게 된다. 부활 때에 신자의 몸은 그 완전함을 공유하면서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될 것이다. 궁극적으로 각 신자는 하늘의 사람의 형상을 충만하게 갖게 될 것이다.

기독교인의 생활

진정한 영성

기독교의 영성은 하나님에 대한 깊은 경외와 사랑의 평생에 걸친 과정이며, 다른 동료 인간들과 함께 올바른 관계로 표현한다. 기독교의 영성은 실천적인 경건으로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가도록 하는 것이다. 그것은 자아나, 비인격적인 힘의 추구나, 존재의 애매모호한 상태나 양심의 변경된상태들의 경지의 도달로 지향되지 않는다. 그것은 삼위일체의 하나님과의 언약적 연합속에서 그리고 세상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친교속에서 성장하고 있다. 그것은 성령에 의해서 유지되고 지배되는 영적인 중생의 결과이다.

경건의 수단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의 심정과 마음에 적용하고, 우리들에게 순종을 가르치고, 모든 신자들의 단체적인 교제와, 하나님에 대한 참 예배와, 세상에 대한 증언과, 시험과 고난과, 악과의 대결에 우리들을 연합하면서 우리 속에서 경건을 생산한다.

경건의 결과

경건의 결과들은 변화된 마음과 심정, 말과 행함, 충만한 기도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계속해서 성장하는 생활을 포함한다. 경건은 자기 부정과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모든 사람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가정에 속한 자들에게 사랑, 인내, 용서, 부드러움, 온정과 친절을 실천하므로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평생동안 성장하도록 한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전체적인 헌신속에서 우리 자신을 계속적으로 복종시키는 일과 연관하면서, 형언 할 수 없는 기쁨, 효성스러운 두려움, 사심없는 경의, 빛나는 사랑, 온정, 절제된 담대함, 균형잡힌 겸손, 존경심, 경외, 만족, 아이같은 신뢰, 순종, 죽지 않는 소망, 시험과 슬픔과 고통의 직면에서 갖는 하나님의 평화등을 경험한다.

영적 체험

하나님 중심의 영적 생활은 성령으로 부터 오는 한 은사로서 이러한 영적 체험들을 한다. 우리들이 성 삼위 하나님에게로 가까이 나아가고자 할 때 우리들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들은 항상 하나님의 존전에서 생활하고 있음을 생각하게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들을 어디에 놓아 두시든지 우리들은 그의 변화시키는 은총의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우리들의 소명을 성취하려는 동기를 부여 받는다. 이러한 생활속에서 하나님과 갖는 우리들의 언약적 연합의 경험은 다만 오는 세대에서 하나님과 갖는 교제의 영광을 미리 맛 보는 것이다.

성경

성경은 성령 하나님에 의해 존재하게 되었다.

성경은 하나님의 호흡으로 된것으로 사람들이 성령에 의해 이끌려져 가면서 하나님으로 부터 나오는 말씀을 하였을 때 기록되어졌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따라서 완전하게 신뢰할 수있다. 성경은 원래 주어졌을 때 성경이 주장하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오류가 없다. 곧 많은 개혁신학자들에 의해 성경 무오성이라고 서술된 교리이다. 하나님은 성경을 기록하는 작업을 감독하였으므로 성경은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바 꼭 그대로 이다. 인간들을 사용하도록 선택하였으므로 하나님은 그들의 인간성을 무시하지 않으셨고, 그들에게 성경을 그대로 받아 쓰도록 하지도 않으셨다. 그러므로 성경은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 자신의 말씀으로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각 저작자의 인간적인 역사와 문체의 형태와 성경이 기록되었던 시대의 특성들을 그대로 나타낸다.

성경은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통하여 인정되어진다.

성경은 우리 마음에 들게 할 많은 훌륭한 질을 나타내지만, 성경의 무오한 진리와 신적인 권위에 대한 충분한 설득과 확신은 궁극적으로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왜냐하면 성령이 말씀에 의해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에 증언하기 때문이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진정성을 나타내는 것은 성령이 내주하는 신자들에게 이다. 기독교 교회는 이러한 방법으로 히브리어 성경과 헬라어 성경을 받았으며, 교회의 권위있는 정경으로 그 성경을 인정할 수 있게 되었다. 성경은 교회나, 하나님 자신 이외의 어떤 다른 근원으로 부터 그 권위를 끌어오지 않는다.

성경은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통하여 이해된다.

성경은 근본적인 명백성을 가지고 있으나 기독교 신자들만이 그리스도의 마음에 접근하고 있으므로 성경의 영적 의미와 의의를 받을 수 있고 이해 할 수 있다. 죄에 빠지게 한 인간의 타락은 의지와 감정 뿐만 아니라 마음 까지도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생겨진 영적 문맹은 인간으로 하여금 성령의 사역없이 하나님의 일들을 이해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인간들이 효과적으로 부르심을 받고 중생하게 되었을 때 성령은 성경을 열기 시작하여 그들로 하여금 이해하도록 하신다. 그의 지혜로 성령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계시의 참된 의미를 드러내신다.

성경은 성령 하나님에 의해 적용된다.

하나님은 그의 말씀의 설교를 통하여 남자들과 여자들을 자신에게로 불러들이신다. 성령은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구원에 대해 지혜롭게 하고 그리고 그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해 성경에 대한 설교와 가르침과 연구를 이용하신다. 우리들이 모든 선한 일을 위해 무장되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활 양식을 보이게 하기 위해, 설교로 하거나 독서로 하거나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와 같이 성경은 우리들의 믿음의 근거, 확인 및 규칙을 제공한다.

성경강해를 지배하는 전제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므로 성경은 자기 모순적일 수 없다. 성경을 읽고, 강해하고,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은 하나님과 성경에 대한 우리들의 이전 확신들 혹은 전제들에 의하여 다양한 정도와 수준으로 영향을 받는다.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 우리들이 전제들을 개정하고 또 그것들을 본문 자체의 의미와 더욱 가깝게 일치하도록 하기 위해 그 전제들을 인식하고 성경 본문의 빛에 따라 검증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성경이 신적 기원과 영감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매우 진지하게 이와 같은 주장을 하는 성경 강해의 방법들만이 성경의 참된 의미에 도달 할 수 있다.

성경의 명료성

원어 성경에 대한 학술적 연구의 필요성은 성경의 명료성 혹은 신적 권위 및 신뢰성을 손상하지 않는다. 구원에 필요한 진리들은 성경에 매우 명백하게 표현되었기 때문에 배웠거나 배우지 못한 독자들 모두가 진리들을 이해할 수 있고 또 이해해야 한다. 성경의 메세지는 그 전제들을 도전하거나 반대하는 철학들과 견해들의 빛에 비추어 해설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반대들을 대항하는 성경적 세계관을 변호함에 있어서 성경의 의미의 명료성은 성경의 한 본문을 다른 본문과 주의깊게 비교할 뿐만 아니라 그 반대의 의미를 검토하므로 얻어진다.

강해의 적절한 방법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따라서 겸손한 복종과 성령의 조명을 위해 기도하면서 읽어야 한다. 성경이 특수한 문화적, 사회적, 시간적 맥락속에서 인간의 언어들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 의미는 강해의 일반적 규칙을 사용하고 고고학, 역사, 본문 비평 및 원어의 연구와 같은 관련된 분야의 도움을 통하여 찾아져야 한다. 이러한 모든 방법들은 성경의 신적 기원, 무오성 및 인간적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성경본문의 의미

성경 본문은 여러 다른 실천적 의미 적용들과 의의들을 가지고 있으나 그 기본적인 의미는 일반적으로 앞에서 요약한 역사적, 문법적, 그리고 구속역사적

원칙들을 주의 깊게 사용하여 결정한다. 풍유적, 영적, 비유적 강해들은 본문 자체에 의해 구체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아무런 권위를 갖지 않는다.

진리와 그 적용의 보편성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진리는 모든 문화와 시대와 민족들을 위해 보편적이며 영원하고 타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에 대해 몇 가지 그리고 뚜렷한 적용들이 있을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황화함에 있어서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의 영원하고도 보편적인 표현인 성경의 원칙들과 다른 맥락에 따라 다양해 질 수 있는 그 원칙들의 실천적 함축들을 구별해야 만 한다. 진리의 적용들은 근본적이면서도 불변의 원칙들을 합법적이면서도 적절하게 연장한 것들이란 사실을 항상 확실하게 해야 한다.

성경 이후 시대 하나님의 자기 계시에 대한 규범적인 형태

신약 정경이 완성된 이후로 규범적인 형태는 우리의 마음에 내주하시며 성부와 성자를 우리들에게 계시하시는 성령의 계몽과 함께 하나님은 성경안에서 성경을 통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었다. 성령의 음성을 듣는 자들은 아들 안에서 우리들에게 약속된 기업을 받으며 그의 도우심으로 그들은 그들의 삶속에서 성부의 뜻을 행한다. 성령이 그 도중에 우리들에게 지식을 주시고 도전하며 격려하기 위해 우리들에게 기록된 본문들을 주신 것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실천에 옮기려고 노력할 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지 우리들을 가르치며 우리들을 인도하기 위함이다. 구약에 더하여 이들 본문들은 그리스도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난 이후 그를 보았고 또 그가 교회를 인도하고 가르치도록 임명한 12 사도들의 승인에 의하거나 그 승인과 더불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 주어진 계시들이다. 이 본문들은 하나님 자신의 총만한 권위를 갖고 있음을 인정한 첫 기독교인들에 의해 수집되고 신약으로 분류되었다. 어떤 기독교 선생이나 교회도 성경에 포함되지 않는 믿음들을 주장하거나 하나님이 성경 다른 곳에 자신을 계시한 것과 모순되는 방식으로 그 본문 중 단 한 곳이라도 해석할 권리를 갖지 않는다.

교회

본질

교회는 모든 기독교인들의 보이지 않는 단체(하나님에게만 알려진)이면서도 많은 공동체를 가진 지상의 보이는 교회이다. 교회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영적이면서도 초자연적인 몸이다. 모든 기독교인은 하나님에 의해서 그리스도에게로 연합되었고, 다른 각 기독교인과의 결합되어 교회를 구성한다.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이며 사도적 교회의 삶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예배, 친교, 성경, 성례 및 선교가 중심이다.

교회의 직임자

성경은 하나님이 각 다른 시대에 교회에 주셨던 많은 수의 직임자들 즉 사도, 선지자, 장로, 집사, 전도자들을 가리킨다. 오늘 날 각 지역 교회에는 장로들과 집사들이 있다. 장로들은 목회자들, 감독자들 모범자들이며 그들 중 어떤 이들은 전파와 가르침에 전념하게 되어 있다. 집사들은 가난한 자들과 결핍한 자들을 돌보는 것과 교회의 실천적이며, 재정적이며, 구조적 필요성들을 보살피는 것이다. 장로직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영적 자질을 요구하는 영적 직무이다.

하나님에 대한 예배

교회의 기본적 책임은 하나님에 대한 예배이다. 이 예배의 본질과 내용은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계시하는 바에 따라 하나님 자신에 의해 결정된다. 이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와 성경을 읽고 설교하는 것과 기도를 포함해야 한다.

지역 회중의 자율성

신자들의 각 회중은 장로들의 규칙아래에서 일정한 정도의 자율성을 가지지만, 다른 모든 회중들과 함께 갖는 더 넓은 통일성이 있다. 이러한 연관성은 교회의 여러 다른 방식으로, 다른 시대에, 다른 부분들로 표현되어 왔다.

성례

성례는 내적이면서도 영적인 은총의 외적이면서 보이는 표적이다. 성례는 그리스도에 의해 제정되었으며 그리스도의 사역을 대표한다. 개신교회는 오직 두 종류 즉 세례와 주님의 만찬(혹은 성찬)만 인정한다. 이들은 흔히 구약 교회의 두 성례, 즉 할례와 유월절과 동일시 되곤한다. 세례는 기독교 교회로 입교하는 의식이다. 세례는 물로 시행된다. 주님의 만찬은 십자가위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죽음을 가리키며,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상징으로 빵과 포도주를 사용한다. 주님의 만찬은, 그가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선언하면서, 신자들을 위하여 믿음의 강화와, 그리스도안에서의 친교와 영적인 영양 공급 기회를 제공한다.

전통

사도적 전통의 존재와 유효성

모든 기독교 교회는 사도시대로 부터 유산으로 받은 믿음의 규칙에 따라 생활한다. 성경은 이 규칙의 유일하게 인증되고 규범적인 형태이며, 모든 다른 믿음들과 그 실행은 이 형태에 의하여 측정되어야만 한다. 사도적 교회들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거나 성경에 의해 명령되지 않은 습관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으나 이와 같은 전통들이 후기 기독교 세대들을 구속하지는 않는다. 이와 마찬가지로 잃어진 사도들의 저작품들이 어느 날 재발견되는 것이 가능 하더라도 그들은 규범적인 규칙의 일부로 사도시대 부터 전수되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으로 간주되지 않을 것이다.

신조와 신앙고백서의 권위

교회 역사의 과정에서 교회는 성경의 가르침을 명백히 하기 위해 신조와 신앙고백서들을 채택해 왔다. 이 문서들과 다양한 교회 단체들의 다른 유사한 결정들은 그것들을 채택했던 자들이 소유했던 권위를 가지고 있으며, 후 세대들에 의해 그렇게 간주되고 또 존중되어야만 한다. 그러나 그것들은 오류가 없는 것이 아니며 성경의 가르침과 일치하지 않거나 그것들의

가르침이 다른 방식으로 더욱 분명하게 표현될 수 있는 것이 보여질 때는 교회는 그에 따라 그것들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다.

유산으로 내려온 전통들에 대한 개혁자들의 반응

16 세기 개혁자들은 교회의 전통들을 철저하게 수정하였고, 성경의 가르침과 분명하게 반대되는 믿음들과 실행들을 버렸다. 어떤 개혁자들은 그 이상으로 나아가면서 비록 성경에 꼭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성경에 의해 지원받을 수 없는 전통들을 폐기해 버렸다. 성경적인 근거가 없지만,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한 신약의 교리를 분명히 증언하는 12 월 25 일의 크리스마스 축하행사는 그 한 예이다. 만약 어떠한 성경적인 교리도 손상되지 않는다면, 지역 교회의 분별에 따라 이러한 종류의 전통들은 유지되어 질 수 있고, 변경될 수도 있고, 또 폐기 될 수도 있다.

예배의 형태와 교회 정치

각 교회마다 그들 자신의 전통이 되어온 예배와 정치의 형태를 개발해 왔다. 이러한 것들이 성경의 가르침에 어긋나지 않고, 처음 개발되었을 때의 목적을 계속해서 성취할 수 있는 한 그것들을 유지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지역교회는 그 교회에 잘 맞도록 이와 같은 전통들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다. 특별히 외국 선교사 활동으로 부터 생겨진 교회들은 선교사들로 부터 전해 내려온 쉽게 토착화되지 않는 실행들을 계승해 왔을 것이다. 이러한 종류의 교회들은 이렇게 전수받은 전통들에 대한 성경적 증거를 검토해야 할 특별한 책임이 있으며 그들의 상황속에서 복음의 증거를 더욱 효과있게 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그 전통들을 변경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움직임이 기독교 공동체 전체의 증거에 미칠 효과를 고려함이 없이 어떠한 교회도 어떠한 전통이나 실행을 폐지, 변경 혹은 채택해서는 안된다.

어떤 전통들에 대한 정략적인 유지

몇몇 전통들은 기독교 세계에 너무 깊이 뿌리를 내리고 또 보편화되어 왔으므로 그것들을 변경한다는 것이 아무것도 성취 못하고 오히려 교회내의 불필요한 분열을 가져 올 수 있다. 비록 초대 교회에서 분명하게 시행해

왔으나 신약에서 구체적으로 요구되지 않는 일요일 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습관이 한 예이다. 어떤 특정한 기독교 단체들이, 예를 들면 무슬림 국가에서 주 중 다른 날 예배드리는 것이 더욱 편리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떠한 교회도 단순하게 성경에 의해 특별히 요구되지 않는다고 해서 일요일 예배를 포기하는 것을 스스로 결정해서는 안된다. 신학적 원칙이 손상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경우에도 기독교 세계의 가시적 통일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선교와 복음전파

말씀과 행위로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우리들의 소명

세상에 대한 우리들의 사명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정과 그의 나라의 오심에 대한 확신에서 솟아난다. 그리스도의 공동체로서 교회는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성경에 따라 죽은 자들로 부터 일어나셨고, 이제는 통치하는 주님으로서 그는 회개하고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죄의 용서와 영생과 성령의 은사들을 주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씀과 행함으로 전파하며 나누는 하나님의 복음전파 도구이다. 우리 하나님의 임무를 순종함에 있어서 우리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두 손을 제시해야 만 한다: (1)그들에게 회개와 믿음과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영원한 화해를 부르는 손 (2)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선(善)을 확장하면서 자비와 온정의 행함들을 나타내는 손. 이것은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에게 주신 모범이며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일치되어간다는 것과, 하나님의 새 창조의 첫 열매와 보증으로 성령을 받았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다.

선교의 소명의 범위

우리들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사람들에게 사랑하고 회개해야 한다고 할 때에 우리들의 복음 선포는 사회적 결과들을 가져온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변화시키는 은총을 증언할 때 우리들의 사회적인 참여도 복음적인 결과들을 가져온다. 만약 우리들이 세상을 무시한다면, 우리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섬기도록 우리들을 세상에 보내신 대 임무를 배반하는 것이다. 만약 우리들이 이 임무를 무시한다면, 우리들은 세상에 아무것도 가져다 줄 수 없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들의 순종은 우리들로 하여금 그를 전체적으로 신뢰하게 하므로 선교를 향한 우리들의 열정을 자극한다. 이것은 우리들의 증언을 대담하면서도 부드럽게 해 주며, 불신자들의 관심을 끈다.

세상을 향한 기독교인들의 온정

우리들은 기독교인들이 가난, 질병, 불의, 인간 불행의 모든 형태들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정으로 옷 입어야 할 큰 필요성을 확인한다. 우리들은 수 백만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절망적인 가난속에 살고있다는 것과 관계가 있다. 온정으로 옷 입도록 우리들을 부르심에는 우리들이 가난한 자들과 함께 걸으며, 구세주가 아니라 구세주 그리스도의 종들로서 고난받는 공동체로 들어가게 하는 영적인 생활의 자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변화시키는 은총을 전하도록 부르심을 받는다.

인간 공동체의 변화

우리들은 공동체의 변화란 모든 삶과 모든 땅의 죄의 결과 즉 남자들과 여자들을 하나님, 자기자신, 다른 사람들, 환경들로 부터 소외시킨 죄의 결과들을 포괄적으로 반전시키는 것과 창조속에 있는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시키는 것으로 이해한다.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충만하게 지니고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이다. 이러한 임무는 이 세상의 삶속에서 시작되지만, 다만 그리스도가 마지막 시간에 영광으로 돌아오실 때 완전하게 이루어 질 것이다. 그것은 우리들이 살고 있는 죄로 물든 문화와 사회를 변화시키며 그리스도에 의해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본질과 일치해서 새로운 문화와 사회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 한다.

율법과 윤리

자연법

하나님의 율법은 그의 사랑의 표현이며, 인류를 향한 그의 의로운 요구들을 제시한다. 그것은 창조때에 인간의 마음에 기록되었으며, 범죄에 이른

타락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그들의 양심을 통하여 그 요구들을 여전히 인식한다. 에덴에서 하나님은 또한 말씀의 형태 즉 선악을 알게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으로 인간들을 향한 그의 뜻을 계시하였다.

모세의 율법

모세의 율법은 그리스도의 인물과 사역 및 그의 교회의 삶을 미리 예시한 의식적 요소들을 포함하였으며, 그 요소들은 지금 이미 성취되어졌다. 그 법은 또한 이스라엘의 시민생활을 형성하는 요소들과 모든 민족들의 생활과 율법들속에서 반영되어야 할 정의의 원칙들을 제공해주는 사법적 요소들도 포함하였다. 그 율법의 도덕적 요소들은 경건한 생활을 위한 형태를 계속 제공해 준다. 하나님의 율법은 죄인들에게 그들의 죄를 보여주고, 유일한 구세주이신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가리켜 준다. 이에 첨가하여 율법은 사회속에서 죄의 표현을 억제할 수단도 제공해 준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에 따라 새로워질 때 그 율법은 그들의 생활을 위한 인도자가 되어 미워해야 할 죄와 추구해야 할 의를 계시한다.

율법의 성취로서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그의 택한 백성을 위한 저주가 되면서 율법의 요구들을 성취하였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이르게된 자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의 명령들을 순종하므로 주님을 향한 그들의 사랑을 표현한다.

결혼과 성 윤리

이성간의 일부일처 결혼은 하나님에 의해 제정되었으며, 남편과 아내는 그들의 가정을 떠나 그들의 일생을 통한 관계를 맺어 서로 연합한다. 성적 욕구들은 이러한 연합속에서 성취되어야 하며, 이 연합속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기독교적 지식과 실행속에서 돌보아져야 하며 양육되어야 한다. 인간의 범죄로 이러한 방식에서 의 탈선들이 일어난다. 성경은 결혼의 약정 밖알에서 일어나는 성적 관계를 금지하는데 동성간의 성적연합도 그러하다. 만약 음행이 저질러졌거나 불신자들이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기독교 배우자들을 버렸을 경우 이혼에 의한 결혼의 해소는 가능하다. 그리스도가 남자의 “머리”이며,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머리”이듯이, 남자는 여자의

“머리”로 성경에서 묘사된다. 가정과 교회에서의 이러한 머리됨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였든 대로 사랑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가족계획

비록 임신 후 약을 먹거나 낙태와 같은 피임은 진정으로 새 생명을 파괴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가족계획은 용인된다. 임신의 어려움을 갖는 결혼한 부부들을 위해, 정자 제공자나 대리모를 사용하는것은, 비록 의학적으로 가능하다 할지라도, 결혼관계로 침투해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선택이 아니지만, 인공수정은 하나의 가능한 선택이다. 질병, 장애 혹은 심지어 죽음까지도 야기할 수 있는 성인들을 통한 실험이 그러하듯이 인간배아를 통한 실험 역시 인간생명을 파괴한다. 인간복제(체세포이전)가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다 할지라도, 재생 복제나 치료용복제 모두 성(性) 과 출산이 결혼의 언약관계의 부분인 성경적 모델에 부합하지 않는다. 인간의 과학적 발견이, 비록 그 자체로서는 본질적으로 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세계를 위한 그의 도덕적 질서를 무시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삶과 자식을 낳는 능력은 하나님의 선물들로 인식되어야 하며, 그것들은 모두 주권적으로 주어진 것이다.

생명의 연장

인간의 몸은 다양한 질병에 걸리기 쉬우며 현대 의학은 적절한 치료와 수술, 치료용 약물로 도움을 줄 수있다. 이식은 질병을 고치거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의학적 개입의 합법적 연장(延長)이다.

생명의 종료

새 사람의 창조가 하나님의 행위이듯이, 사람의 생명의 종국을 결정하는 분은 하나님이다. 생명의 기원과 종료는 모두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속에 있다. 약품들은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지만, 인간의 생명을 종료하는데 사용될 수 없으며, 개인적 즐거움을 주거나 환각의 상태를 유도하기 위해 사용되어서도 안된다. 비록 현대 기술이 사람을 인위적으로 생존하게 할 수 있더라도 뇌의 활동에 대한 증거가 없을 때에는 그와 같은 기계를 잠그는 것은 잘못이 없다.

종말론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태초에 아담의 시험의 끝과, 하나님의 안식, 그리고 생명나무로 부터 오는 영생의 약속에 대한 성취의 약속이 있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의도가 그가 보시기에 매우 좋도록 만드신 것을 완성 할 것을 기대하였다. 바울은 마지막 아담의 부활(혹은 재창조)을 타락 전의 첫 아담의 창조의 성취로 보았다. 구속의 역사는 구속주의 삶과 죽음에서 절정에 이르는 하나님의 구속 목적들을 이루어내는 것과, 모든 민족들에게 구원을 주시며, 하늘과 땅의 종말론적 재 창조를 이루시는 일이다. 현재 그리스도에게로 연합된 자들은 그들속에서 살아계시는 성령에 의해서 오는 세상의 능력을 이미 경험하고 있다. 그들은 비록 죽음을 경험할지라도, 그들은 이미 미래의 부활을 맛보고 있다.

죽은자의 상태

죽음 이후 즉시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에게 돌아가며 반면에 그들의 육체는 파괴 되어진다. 그들은 잠 자는 상태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구원받은 자들의 영혼은 하나님의 존전에서 완전한 거룩과 기쁨의 상태로 들어가며, 부활을 기다리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 한다.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완전한 뜻과 계획의 빛에 따라 모든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의 행복은 그들의 지상세계에서의 삶에 대한 기억으로 방해 받지 않는다. 그들의 행복과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총에 의한 것이다. 그들은 살아 있는 자들을 위해 중보 기도를 하거나 살아있는 자들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가 될수 있는 능력을 갖지 않는다. 유기된 자들의 영혼은 죽음 이후 파괴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존전에서 쫓겨나 고통과 흑암의 상태에 들어가서 심판의 날을 기다린다. 죽음 이후에는 이러한 두가지 이외에 어떤 다른 상태는 없다. 구원받은 자나 유기된 자의 영혼은 죽음 이후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 돌아올 수 없다. 육체에서 이탈된 영혼의 활동으로 여겨지는 모든 경험들은 인간의 상상이거나 마귀들의 행동으로 여겨져야만 한다.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령의 보내심으로 이어지면서 성경에서 마지막 시대라 불려진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였다. 현재의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완결된 사역의 '이미'와 미래의 극치의 '아직'의 반(半) 종말론적 실제에 살고 있다. 어느 날 그리스도는 모든 세상이 그를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의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서 가시적으로 이 세상에 돌아 오실 것이다. 그는 모든 성도들과 그의 모든 천사들과 함께 능력으로 오셔서 모든 인간을 심판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하게 임하게 하실 것이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도록 아주 강력하게 권고하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언제 일 것인지에 대한 시간표나 표적을 우리들에게 주시지 않는다. 그리스도의 오심은 그리스도인의 가장 높은 소망이다. 교회는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또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므로 그날을 앞 당기도록 격려를 받고 있다.

죽은 자의 부활

그리스도에게 속한 죽은 자들은 그리스도의 몸과 비슷한 몸을 입고서 그의 능력에 의해 부활하게 되며, 하나님과 교제하고 영원토록 즐거움을 누릴 영적 상태에 적합하게 갖추어진다. 유기된 자들도 부활하게 되지만, 심판과 영원한 형벌을 위할 뿐이다. 이러한 운명은 우리들을 떨게 하고 두렵게 하며 모든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의 복음을 전하도록 인도한다. 구원받은 자와 유기된 자들의 인격적 정체성은 그들이 땅에 있을 때와 꼭 같지만, 그들의 신체는 그들의 본질과 속성에 따라 변화되어 질 것이다.

최후 심판

그리스도는 인자이며 세상을 영원토록 다스리는 왕이시기 때문에 세상의 심판자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이다. 그는 산 자들과 죽은 자들을 의롭게 심판할 것이며, 어떠한 편애나 편파를 나타내지 않을 것이다. 택함 받은 자들은 그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때문에 의롭다고 선언될 것이며, 그의 영원한 왕국으로 들어가도록 초대 받을 것이다. 악한 자들과 유기된 자들은 사탄과 마귀들과 함께 그들의 범죄와 사악함에 대해 정당하게 유죄를

선고받게 될 것이며, 그의 존전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다. 그동안
기독교인들은 끝날에 충분하고도 완전한 심판이 이루어 질 것임을 알고서 이
세상에 정의를 이루도록 모든 합법적인 노력을 지원해야 한다. 그리스도가
그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였던 보상에 대해 성경은 별로 언급하지 않지만,
우리들에게 순종과 성실을 위해 더 많은 동기를 부여하는 것으로도 충분하다.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승귀와 그의 재림 사이의 중간 기간, 즉 복음의 복된 소식과 그
축복들이 민족들에게 알려지게 되는 현재의 시간은 대부분의 교회에 의해
성경에서 말하는 천년왕국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어떤 이는 그리스도가
재림하신 이후 그리스도가 땅을 통치하는 천년의 문자적 기간으로 주장한다.
현재는 인간의 범죄와 사탄의 반항과 능력의 결과들로 여전히 고통을 당한다.
그리스도가 영광중에 돌아오시기 까지 그리스도의 왕국의 표현과 함께 악의
많은 모습도 여전히 이 세상에 나타난다.

새 창조

그리스도가 돌아오신 다음, 하나님은 물질적인 우주를 재 창조 하실 것이며,
영생과 완전성으로 옷 입혀진 그의 부활한 백성들은 이 새로운 하늘과 땅에서
영원토록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살 것이다.

종말론 문제들에 대한 다른 해석들

기독교인들은 마지막 일들을 이루는 주요 사건들에 대해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지만, 그들의 차례나 본질에 대해 항상 일치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지막 일들을 완전히 이해 할 수 있었던 것은 흔히 다만 예언들이
성취된 다음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마지막 일들이 겸손하게 토론 되어야
만 한다.

